**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막 4:35-5:2>

35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1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1 많은 경우 우리는 낯선 곳으로 나아가기보다 익숙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더 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구나 그 일만 하기에도 벅차다고 느낀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한 배에 올라 앉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었습니다. 모두가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바다 저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항해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을 육지에서 잘 쉬고, 다음 날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무리한 선택을 하신 걸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 바다 건너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늘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을 향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막 5:8).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를 만나기 전부터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무리해서 거기로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나시는 분입니다 (눅 15:4).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요 10:16). 그 주님께서 마침내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21).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주요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저 세상으로 말입니다.

3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맞게 되자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바다에 익숙한 몇몇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예견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이 배를 타지 말았어야 했어. 애초부터 이건 너무 무리한 시도였다고!” 두려움과 함께 이런 후회와 원망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이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이 잘못입니까? 그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기다려야 했던 걸까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을 깨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다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산 교육을 시키고 계신 중인 것입니다.

4 그러므로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에 의해 철저히 의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한 보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서로 말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단지 좋은 선생으로 아는 것과, 그분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우고 바다 저편으로 이동하던 배는, 이처럼 바로 그 극한의 상황이 아니면 도달할 수 없는 보다 깊은 믿음의 세계로 제자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를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매우 귀한 순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한 네 명의 지체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와 복음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귀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런 일입니까? 이 세례 의식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의 몸 된 교회와 공식적으로 연합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는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 믿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언제나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5 체코의 개신교회는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밝히고자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선조들의 위대한 개혁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 믿음의 항해는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남긴 믿음의 유산은 이후 그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계속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 밖 세상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거기에는 아직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기 몸과 영혼을 스스로 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듣게 될 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작고, 또한 너무 지쳐 있어!”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격려와 도전의 음성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잠시는 편할 지 모르나, 곧 우리의 믿음은 껍데기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믿음의 항해를 떠난다면, 비록 그 여정이 순탄치는 않을 지 모르나,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섬기며 생명을 구원할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주님을 신뢰하고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요구되는 우리 믿음의 부족분은 바다 건너편에 이르기 전, 즉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의 방법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 바다 저편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킬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6 지금 우리는 꼬빌리시 다민족 교회라는 한 배를 타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내게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좋은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기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와 문화, 전통의 장벽들로 인해 적잖은 불편과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를 시작한 이래로, 우리의 한계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며 우리를 더 깊고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한계들은 우리가 함께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할 기도제목들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체코 사회를 섬길 만한 온전한 믿음의 능력이 시나브로 우리 안에 형성되어갈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요 12:26). 아멘.